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6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5월 12일 (음력 4월 18일) 화요일

'여니'와 '수니'

여수박람회 마스코트 확정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마스코트가 '여니'와 '수니'로 결정됐다. 〈사진·관련기사 3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박람회 마스코트를 '여니'와 수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명의 근원인 플랑크톤을 모티브로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과 '지구를 품은 넓은 바다'를 뜻하는 '여니'와 '수니'는 12일 여수에서 열리는 '2012 희망 세박(世博) 100만 서포터즈' 발대식과 마스코트 선포식 행사에서 공식 마스코트로 선포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1일 미얀마의 민주·인권단체인 'PPDD' 관계자들이 미얀마 난민캠프 내 '라이트 스쿨'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18 광주 항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전개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일 새벽 3시 2015 U대회 개최지 결정

유럽 표심잡기 막판 총력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유치위원회가 대회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오는 16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현지 사무소를 오픈, 해외 정보수집과 홍보에 나선다.

FISU는 오는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브뤼셀의 돌체 라 울프 호텔에서 2015하계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광주와 대만 타이베이, 캐나다 에드먼턴 등 3개 유치신청도시의 프레젠테이션(PT)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해지며, 최종 개최 도시 발표는 같은 날 밤 8시(한국시각 24일 새벽 3시께)로 예상된다.

광주시 유치단은 16일 현지 사무소 오픈에 이어 21일 총회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한 뒤 22일 리허설을 거쳐 23일 오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다.

현재 하계 U대회 광주유치위원회와 광주시 관계자들은 최종 유치전략을 가다듬는 한편, 전체 집행위원의 절반(13명)에 달하는 유럽집행위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미 한달여 전부터 김윤석 경제부시장이 해외를 돌며 각국 집행위원들을 만나 표밭을 훑고 있으며 박광태 광주시장도 해외 유치활동을 위해 12일 출국한다.

또 광주시는 광주를 알리는 마지막 기회인 최종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PT에는 광주·전남지역 주요 경기장 시설과 재정 조달계획, 대회 운영계획, 선수단 수송 등 교통편의시설, 숙박 및 편의시설, 선수촌 현황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과 여건 등이 담기게 된다.

특히 광주만의 매력과 대회 개최 이후 한국은 물론, 세계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피겨요정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일본의 광고기획그룹인 덴쓰(Dentsu)사에 프레젠테이션과 기획 홍보를 의뢰했다.

한편, 개최지가 선정되는 오는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새벽 4시까지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는 '대회 유치기원 철야 응원전'이 펼쳐진다. 응원전에는 2천여명의 시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참가해 현지 FISU 총회를 실황중계로 지켜보며 대회 유치를 기원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유 찾아 왔지만 혹독한 빈곤이…

미얀마 난민캠프 현장 취재 ▶5·18 전도사들 시리즈 6면

태국 메솟=이종행기자

'광주 정신' 배우며 주인의식 키워가

미얀마가 주권을 되찾은 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다. 그러나 군사정권에 의해 국명조차 미얀마로 바뀐 채 최악의 인권상황과 빈곤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정치적 망명 또는 빈곤, 전쟁 등을 이유로 국경을 건너는 피난민이 한 해 평균 6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인권을 무시당한 채 처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5·18 광주 민중항쟁' 29주년을 맞아 미얀마의 민주·인권단체인 'PPDD'와 함께 미얀마 난민캠프를 밀착 취재했다. 이 단체의 설립자 안나 멀린독(Anna Malindog·여·27)씨는 5·18 기념재단의 '광주 아시아인권학교(2007년)'를 수료한 뒤 현재 미얀마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태국 방콕 북서쪽에서 500㎞ 가량 떨어진 미얀마 난민캠프. 이 곳은 태국 매솟과 미얀마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캠프에 들어서자 바나나 잎과 야자수 잎으로 만든 지붕 아래 대나무로 엮은 벽면의 집 네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30m 남짓 풀밭을 걸어나오자 한 난민이 통나무 기둥 위에 바나나 잎으로 지붕을 얹고 있었다. 며칠 전 국경선을 넘어 이곳에 새 둥지를 튼 난민이었다. 그 옆으로는 코흘리개 아이들이 맨바닥에 누운 채 풀을 씹고 있었다. 또 한 아낙네는 집밖으로 나가려는 젖먹이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난민캠프는 평화스런 겉모습과는 달리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궁핍한 삶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콘크리트 건물이나 승용차는 물론, 병원이나 약국, 상점 등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식수도 부족해 빗물로 받아쓰는 형편이었다.

난민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농장, 태국인 부유층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해 번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천바트(한화 3만6천원). 이 돈으론 네 식구 기준 한 달 식사비 2천400바트(한화 8만6천9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조차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golee@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미얀마 난민캠프 위치도

기아차 광주공장 다시 풀가동

스포티지 생산라인도 오늘부터 정상화

기아차 광주공장이 이달들어 1·3공장을 정상 가동한데 이어 12일부터 스포티지 생산라인인 2공장도 주·야간 8시간씩 가동하기로 하는 등 5개월만에 전 공장을 풀가동하게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 라인 정상가동은 내수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12일부터 스포티지를 생산하는 2공장 가동시간을 주·야간 6시간씩에서 8시간씩으로 2시간씩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공장은 경기침체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가동을 중단하거나 주·야간 6시간씩 일하는 부분가동을 계속해 왔다.

2공장의 '8+8'체제로의 복귀는 지난해 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정상가동을 의미한다. 2공장 정상가동 배경에는 노조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PBS(PAINTED BODY STORAGE·자동차 제조공정중 도장완료 후 본체를 대기시켜 놓는 장소) 라인 증설을 사측이 받아들여 이달말 증설작업에 들어가기로 한데 따른 측면도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에앞서 이달 초부터 1공장(카렌스, 쏘울)과 3공장(봉고트럭)에 대해서도 5개월가량 주·야간 8시간씩 가동하던 것을 2시간씩 잔업을 더해 '10+10'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토요일인 지난 9일 1차로 주·야간 특근을 한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주·야간 특근을 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경기침체 이전 수준인 월 4회의 풀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5개월만에 풀가동에 들어간데는 그동안 감산에 따른 제고 감소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 증가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2공장 정상가동은 전 공장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로 공장 가동에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